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저도 스무살... 마지막 아역에 열정 쏟을 것”

MBC ‘해를 품은 달’ 양명균 역 이민호



“마지막 아역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무 살이잖아요.(웃음)”
그런데 ‘마지막 아역’에서 ‘꽃도령’역을 맡으니 대박이 터졌다. 주인공은 MBC ‘해를 품은 달’에서 양명균 역을 맡은 이민호. 1993년생이다. 만 열여덟, 다음달 백양고를 졸업하고 중앙대 연영과에 입학한다.

‘던’에 출연하면서다. 이후 KBS ‘성균관 스캔들’과 MBC ‘계백’을 거치면서 그는 개성 있는 모습으로 극에 방점을 찍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그와 앞선 작품 속 그를 매치시키는 시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배우로서는 다행이죠. 그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지금껏 역할을 가리지 않고 해왔어요. 멋진 역할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인물에 욕심을 썼어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23일 丙子)

- 36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번수를 염두해야 한다. 48년생 주변 정리를 잘해야 손해가 없겠다. 60년생 상대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낫다. 72년생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리라. 84년생 자업자득이요, 사별귀경이요. 행운의 숫자 : 12, 70
37년생 학수고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져 후련하다. 49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61년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자신감 있게 시도하라. 73년생 지난날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85년생 일의 시초가 중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44
38년생 꿈이 생각해보면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50년생 협조 의식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2년생 상대에게 성심껏 잘 해주고도 피해를 볼 수 있다. 74년생 문서는 형식과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22
39년생 준비하지 못해서 크게 실움을 당할 수다. 51년생 정직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느니라. 63년생 삶의 진정한 투자가 되어라. 75년생 경험자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78
40년생 담이 두고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해버려라. 52년생 가능성은 필요의 이웃이 아니라. 64년생 합당을 하게 되면 자신도 똑 같이 들게 되느니라. 76년생 재산에 의지하는 것보다 용기를 믿는 것이 더 좋다. 행운의 숫자 : 06, 84
41년생 의심하다가 큰 일 나는 수가 있다. 53년생 지혜의 샘물은 마실수록 힘차게 솟아나는 법이다. 65년생 참으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77년생 성실성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28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Can you give me a ball park figure?' featuring Korean-English dialogues and a '蛇足(사족) 긴뱀 사, 발 족' puzzle.

Advertisement for '신비림' (Shinbireum)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contact inform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洛陽紙貴' (Luoyang zhi gui) featuring a Chinese-English dialogue and a '니하오 풍구위' puzzle.